



즉시 배포용: 2018 년 4 월 17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세금 납부일(TAX DAY)에 연방 정부의 증세로부터 뉴욕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선택적인 지불 급여세 시스템, 자선 기부에 대한 새로운 기금, 연방 정부 조세 규정으로부터 분리 등이 포함된 제정 예산 -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개혁안 요약본

치명적인 연방 정부의 공세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공조된 대응, 뉴욕주 납세자가 부담하는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es, SALT) 제한 비용 143 억 달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 세제 개혁으로 인한 세금 인상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세금 납부일(Tax Day)을 승인했습니다. 주정부 조세 규정의 이러한 변경은 뉴욕의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공제 제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공제 제도는 제정된 이후 현대 연방 정부 소득세의 일환인 세법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이 법안으로 (1) 세금 공제가 가능한 자선 기부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고, (2) 직원이 공제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고용주 보상 지출 프로그램(Employer Compensation Expense Program, ECEP)을 고용주가 만들며, (3) 연방 정부 세금의 증가로 인한 주정부 세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 정부 조세 규정과 주정부 조세 규정을 분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적 심장부를 표적으로 삼고, 미국의 부자와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뉴욕주의 근면한 남녀 노동자들의 이익을 빼앗고 있는 가운데, 뉴욕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워싱턴의 표적 공격에 맞서 뉴욕 주민을 확실히 보호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싸움을 주도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주민 가족의 권리와 지갑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 예산국(State Budget)의 Robert F. Mujica, Jr.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 조세 규정에 대한 이러한 개혁은 수많은 조세 전문가,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주정부 기관들 사이의 공조 결과입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이 법안은 뉴욕주의 납세자, 주정부 예산, 경제 경쟁력 등을 보호할 것입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George Latime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는 대부분의 주민이 1년에 1만 달러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학교, 지방 정부, 주정부 등을 위한 세금입니다. 최종적인 연방 정부 예산은 웨스트체스터를 강탈했고, 우리 주민의 삶의 방식을 위협했습니다. 카운티 납세자를 돕기 위한 이 창의적인 계획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문제가 얼마나 긴급한지를 인식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정부 법안을 지지하며, 그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 카운티 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의 Stephen J.

Acquari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세금 납부일(Tax Day)입니다. 뉴욕 주민은 우리 주가 연방 기금의 형태로 연방 정부로부터 돌려 받는 금액보다 수십억 달러를 더 워싱턴에 다시 보낼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주로서, 우리는 납세자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의 제정을 추진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주의회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시장 협의회(New York State Conference of Mayors, NYCOM)의 Peter A.

Bayne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장 협의회(NYCOM)는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공제에 대한 새로운 상한을 적용하여 뉴욕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가해지는 손해를 완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님의 주도적인 리더십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뉴욕 시장 협의회(NYCOM) 및 다른 그룹들과 협력하여, 주지사님과 주의회는 뉴욕 주민이 세금 인상, 주택 가치 감소, 필수적인 지자체 서비스 축소 등을 피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옵션을 제정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명된 이 법안은 최근 제정된 연방 정부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의 악영향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뉴욕주 조세 규정에 대한 일련의 개혁안을 제정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18년 1월에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릅니다. 이 보고서는 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조치를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학계, 그리고 민간 부문 전문가들과의 세심한 연구와 광범한 상담을 거쳐 제기한 개정안은 뉴욕 주민 보호에 대한 실용적인 선택사항들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행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궁극적으로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 반영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뉴욕주 자선 기부 촉진:**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 따라 뉴욕주의 의료 서비스와 공공 교육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기부금을 접수하기 위해, 주정부가 운영하는 새로운 자선 기부 기금(Charitable

Contribution Fund)을 만듭니다. 납세자는 공제금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이러한 자선 기부금을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세금 환급 공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한 모든 납세자는 과세 연도에 기부한 기부금의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정부 세금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비영리 단체에 자격이 되는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 정부의 지방 자선 기금을 설립 승인: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지방 정부가 자선 준비 기금(charitable gift reserve funds)을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지역 자선 기금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부동산세 공제(real property tax credits)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이 법에 따라 이러한 기금은 교육, 의료 서비스, 기타 자선 목적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없는 자선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도시, 타운, 빌리지, 교육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방 정부와 교육청은 자선 기금(charitable funds)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지역 자선 기금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부동산세 공제(real property tax credit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중요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조세 제도에 구축되어 있는 세금 공제 제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mployer Compensation Expense Program, ECEP)의 대안 수립:**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고용주가 연방 정부 세제 법안(federal tax bill)으로 직원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연방세 개혁법이 개인에 대한 주 및 지방세 공제금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에 기업은 이런 한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주는 새로운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mployer Compensation Expense Program) 체계에 참여(opt-in)할 수 있습니다. 참여 고용주는 직원당 4 만 달러를 초과한 모든 연간 급여액에 대해 5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2019 년 1 월 1 일부터 3 년 이상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진보적인 개인 소득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CEP) 가치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금 공제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개인 소득세를 삭감하여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CEP)의 대상이 되는 주정부 세금 신고자들의 실수령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revenue neutral)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용주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연방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연방 정부 조세 규정으로부터 분리:** 이 주세법은 연방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세법은 연방세법으로부터 분리하여 필요시 연방세 인상으로만 초과하는 15 억 달러 이상의 주세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방 법은 이미 배정받는 연방 예산보다 워싱턴에 매년 480억 더 지불하는 뉴욕주에 불균형하고 불리한 영향을 끼칩니다. 뉴욕주 조세 재무부(State Department of Tax and Finance)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전체 SALT 공제금에 대한 단독 삭감은 뉴욕에 143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 합니다.

주정부 조세 규정에 대한 이러한 변경 사항은 연방 정부의 조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다면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및 코네티컷 주지사와 함께, Cuomo 주지사는 연방 정부를 고소하기 위한 연합을 결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법안은 각 주가 자체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감소함으로써 주의 행정 능력을 효과적으로 감퇴하며 헌법에 위배되게 뉴욕과 기타 비슷한 상황의 주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